



## 왜 돈을 찍는데 자산만 오를까?

1 1 2 999

여러 기사와 이론 글을 같이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성장이 멈추고,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빚이 늘어나고, 돈을 찍어내고, 그러다 인플레이션이 터진다. 항상은 아니었지만, 문제가 터지는 지점은 묘하게 비슷한 곳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하게 되는 지점이 있다. 양적완화를 하면 자산 가격은 즉시 오르는데, 물가 급등은 12~18개월 뒤에 온다는 거다.

왜일까.

← Article ↗

낸 돈이 일반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금융 기관을 거쳐서 자산 시장으로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깔끔하긴 한데, 그 순간엔 설명보다 '왜 이렇게 흘러가게 설계됐을까'가 더 걸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심리일 수 있다.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 시작하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뭔가 실물을 사려고 한다. 이게 자산 가격을 더 밀어올린다.

기축통화('세계 공통 돈표' 같은 것):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로, 그 나라에게 엄청난 차입 권한을 준다.

중앙은행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찍어낼 때 주식, 금, 원자재를 매수하는 얘기가 계속 눈에 밟혔다. 과거 1933년과 1971년 미국의 금 태환 정지 사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긴다. 이게 정말 성장일까, 아니면 단순한 재분배일까?

재분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숫자는 분명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기준만 바뀌었을 뿐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두 배 올랐다고 하자. 그런데 돈도 두 배로 늘어났다면? 진짜 부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단위만 바뀐 건지 알 수 없다.

← 교묘하게 이런 재분배가 자동으로 성장처럼 '부이게' 설계되어 있다느 정도

← Article ↗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돈을 찍어낸 국가가 가져야 할 몫을 다른 누군가가 가져간 것뿐일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착시가 너무 정교하다는 거다. 당사자들조차 진짜 성장인지 재분배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심지어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함께 바뀌기 때문에, 상대적인 변화를 포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돈을 찍으면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워진다."

시장은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가격이 먼저 폭등하고, 실제 생활물가 상승은 나중에 나타난다. 이쯤 되면 설명은 가능한데, 설명으로는 이상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돈이 실제로 흘러가는 경로와 속도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자산 시장에 먼저 반영되고, 실물 경제에는 시차를 두고 전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역사 자료와 현재 상황을 번갈아 보다 보니, 예상과는 달리 최근에는 각국이 각각 다른 시기에 비슷한 곡선을 그렸고, 마지막에 중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곡선으로 등장한다.

이런 호흡을 Ray Dalio는 '빅 사이클'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설명한다.

국가든 개인이든 "번 것보다 적게 쓰고, 서로를 잘 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요점이었다.

요즘엔 자산 가격 뉴스를 볼 때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자산이 정말 비싸진 건지 아니면 돈이 싸진 건지 구분해서 봐야겠다는 생각.

정부가 경제 부양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실제 생산성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유동성만 품 건지 확인하려 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시장은 어떤 조기 신호를 보낼까? 내가 지금 보는 번영이 진짜 성장인지, 화폐 착시인지 구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Want to publish your own Article?

[Upgrade to Premium](#)

2:25 PM · Jan 13, 2026 · 999 Views

1 1 2 999

← Article ↗

요즘엔 자산 가격 뉴스를 볼 때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자산이 정말 비싸진 건지 아니면 돈이 싸진 건지 구분해서 봐야겠다는 생각.

정부가 경제 부양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실제 생산성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유동성만 품 건지 확인하려 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시장은 어떤 조기 신호를 보낼까? 내가 지금 보는 번영이 진짜 성장인지, 화폐 착시인지 구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Want to publish your own Article?

[Upgrade to Premium](#)

2:25 PM · Jan 13, 2026 · 999 Views

1 1 2 999